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제1차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세대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세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특히 교육과 부(父)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각각 그리고 상호연계되어서 자녀의 경제적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응분석의 결과 전체적으로 지위의 세습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위의 양극단에서 강한 세습이 나타났다. 즉, 학력에서는 초졸이하 아버지와 중졸이하 자녀, 대학이상 아버지와 대졸이상 자녀, 경제적 수준에서는 가난한 아버지와 하위계층 자녀, 부유한 아버지와 상위계층 자녀,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직 아버지와 단순노무직 자녀, 전문직 아버지와 전문직 자녀 간의 일치도가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녀의 학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배경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연령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40대에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가장 낮은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대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높아졌으며,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는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즉,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투자의 계층별 격차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용어 사회이동,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 교육

교신저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eugene@kihasa.re.kr)

■ 투고일: 2008. 09. 30

■ 수정일: 2008. 10. 21

■ 게재확정일: 2008. 11. 07

I. 서론

교육의 다양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그것을 통한 계층(계급)의 유지 혹은 상승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은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¹⁾. 개인은 교육 성취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어떤 개인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념형적으로 볼 때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 사회를 개방사회(open society)라고 정의한다면 이에 대비되는 사회는 물론 폐쇄사회(closed society)로 정의될 수 있다. 모든 사회는 완전 개방사회와 완전 폐쇄사회를 양 극단으로 하는 평행선상의 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 또한, 한 사회 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개방적인, 혹은 점점 더 폐쇄적인 사회로 변화해 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회의 개방성과 폐쇄성 정도는 결국 현존하는 불평등 중 얼마만큼이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세대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 정도와, 이러한 불평등의 세습과 재생산 과정에서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²⁾.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대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몇몇 ‘개천에서 용난’ 사례들은 마스크를 통해 귀감으로 소개되어 왔고 이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분상승을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고취하는데 일조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학력사회에 진입하였고³⁾, GDP 대비 공교육비⁴⁾ 역시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GDP 대비 사교육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교육열과 형식적인 교육기회의 확대가 실질적인

1) 사회이동이란 주어진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생애 과정 내(세대내) 혹은 세대를 넘어(세대간) 변화하는 정도를 말한다. 특히, 사회학자들은 전형적인 계급과 직종에 있어서의 세대간 이동을 분석하는 반면, 경제학자들은 소득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서 사회이동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학 문헌은 또한 절대적 이동과 상대적 이동을 구분한다. 전자는 단순한 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으로 이동한 사람의 수를 보는 반면, 후자는 상이한 계급의 사람들이 특정 사회계급으로 유입될 확률—즉, 특정한 이동 변환을 일컫는다(d'Addio, 2007).

2) 물론, 세습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 중 비가시적이거나 비물질적인 부분—예컨대 유전—들의 상당 부분은 설명되지 않은 변량으로 남게 되는 한계가 있다.

3) 우리나라는 1995~99년 사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 중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1990~94년에 진입한 사람들 중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보다 7.9%p 높았으며, 1975~79년에 진입한 사람들 중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보다 32.8%p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각각 2.8%p와 8.6%p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4) 우리나라의 2006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7.6%로서 OECD 평균(5.6%)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8.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7). 그러나 공교육비 중 약 39%(GDP 대비 2.8%)를 민간부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공공성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교육의 평등과 나아가 사회적 평등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왔는데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종엽, 2003; 김기석, 2004a, 2004b; 방하남 외, 2004; 김영석, 2006; 오호영, 2006).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세대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세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특히 교육과 부(父)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각각 그리고 상호연계되어서 자녀의 경제적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II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던컨으로 대표되는 기능주의적 모형과 보울즈와 진티스로 대표되는 갈등주의적 모형의 대비를 통해 교육이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이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공교육 발전과정에서의 기능주의적 요소와 갈등주의적 요소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또한, 본 연구과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자료 및 변수를 기술하였다. III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앞에서 소개한 이론과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가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1.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교육과 사회이동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기능주의적 입장은 개인의 학력성취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제약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Boudon, 1973)이며, 그 결과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의 점진적인 평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그 논거를 산업사회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김경근, 1993). 즉, 국가에 의해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세습에 의해 직업과 계층이 결정되지 않는 근대사회로 이동함에 따라, 교육은 하류계층 출신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으며, 대중교육 혹은 공교육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회계층적 편견을 감소시키거나 나아가 제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⁵⁾. 이와 같이 교육기회가 확대되면 특히 하층민들에게 상승이동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Harvigust, 1961; 김경근, 1993 재인용). 한마디로 교육은 사회계층의 종속변수이기도 하나, 사회적 계층이동의 독립변수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초기 산업화시기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있는 경우, 경기의 호조로 인해 새로운 많은 직업이동의 기회가 제공될 때, 또 성취중심의 개방형 민주제도가 확대될 때, 평등화 기제로서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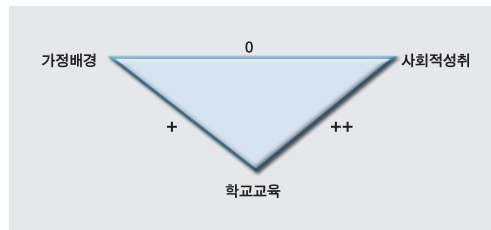
5) 엄밀히 말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생물학적인 요인 말고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생겨난다 해도 지속성이 없으면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층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없으면' 계층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귀결에 의하면 사회는 계층이나 계급으로 구분되기보다는 능력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성취사회의 본래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 때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능력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고 용인될 수 있다고 본다.

육의 독립변수적 기능은 확대된다고 본다(이영자, 진규철, 2000:4장; 양재진, 2005 재인용).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생산과정에서 고도의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게 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과 숙련이 요구된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술과 숙련이 학교를 통해 습득되고 직업지위획득에서 학력과 같은 업적요인이 귀속요인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업적요인의 중시경향과 보편주의적 가치의 확산은 학력성취의 계급별 차이를 감소시킨다. 결국 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교육기회의 평등’은 사회발전을 위한 핵심적 이데올로기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교육체계 확대와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의 복지정책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교육체계 확대는 진학가능성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으로 뒷받침되는 물질적 풍요와 직업의 안정은 교육비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하층계급의 교육성취를 가로막은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남춘호, 2004:57-61; 방하남 외, 2004:57-58).

이러한 기능주의적인 낙관론은 블라우와 던컨(Blau & Duncan, 1967), 세웰 등(Sewell et al, 1976)에 의해 경험적으로 지지된다. 블라우와 던컨은 경험적 분석을 통해 가정배경은 어느 정도 학교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회적인 성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학교교육은 사회적 성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아래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제시했다.

그림 1. 블라우와 던컨의 모형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교육기회의 평등과 개방적 성취사회의 이상은 상당히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교육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우리나라와 선진 산업사회 어디에서도 이 같은 낙관적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즉, 사회계층(계급)에 따라 교육은 상당히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그 결과-다른 요인들과 더불어-세대내·세대간 사회이동은 상당히 제약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계몽주의 문화와 학교의 확산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체제의 정당화 문제가 맞물리면서 형성된 근대교육체제는 계몽주의 프로젝트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 즉 해방이 아니라 예측,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매커니즘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김종업, 2003). 이들 논의를 수용한다면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견제하는 제도이기보다는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하기도 하는 주요 매커니즘으로 규정된다.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많은 교육과 보다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향후 사회에 나아가 부모와 비

슷한 상위계층에 올라서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하위계층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적 분화와 고착화는 세습이 아니라 업적에 따른 것으로 정당화되며, 교육을 통해 사회계층구조가 공고화되는 것이다. 결국 콜만과 후센(James Coleman & Torsten Husen)의 교육적 하위계층(the educational lower class)이 탄생하며, 교육은 그 어떤 불평등화 기제보다도 정상성을 갖춘 불평등 기제가 되는 것이다(Rinne and Kivirauma, 2005:67; 양재진, 200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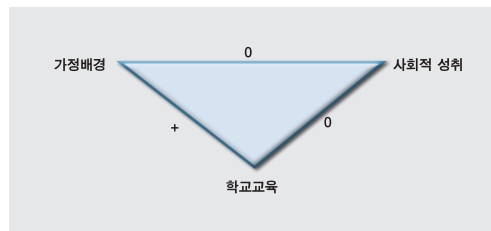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20세기 후반 교육기회의 전반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사회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가족배경에 따른 학력성취의 불평등이 지속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써로우(1972)는 ‘방어적 투자’(defensive expenditure)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교육기회 확대에 따라 일반적 교육수준이 향상되면 지위경쟁에 위협을 느낀 지배계층은 더 많은 교육 투자를 통해 교육의 ‘차별화 전략’을 꾀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방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방하남 외, 2004:60)⁶⁾. 최근 하우트 등에 의해 제기된 MMI(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에서는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간의 교육격차는 상층계급이 포화상태일 때만 감소한다고 주장한다(Muller, 2007).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구성장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계층구성의 상향화에 따라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교육기회 역시 확대된다. 그런데 이 때 교육체계 팽창에 따른 교육기회(공급) 확대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가족배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지만 그전까지는 가족배경의 영향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즉 상층계급의 이득이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학력성취의 계급별 차이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교육기회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더라도 충분히 팽창한 하급단계의 이행에서는 가족배경의 영향이 감소하지만, 아직 팽창 중인 상급단계의 이행에서는 그 영향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방하남 외, 2004:60). 이에 대해, EMI(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가설에서는 고등교육체계가 충분히 팽창하면 가족배경의 영향이 줄어든다는 MMI 가설의 주장이 부정된다. EMI 가설에서는 학력성취를 둘러싼 경쟁이 양적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력성취의 계급별 차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EMI 가설에 의하면 상층계급은 자녀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 어디든지 그 이득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교육수준의 양적 차이가 존재하면 양적 차별화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 하고, 양적 차이가 가져다주는 이익이 미미하면 질적 차별화를 통해 이득을 획득하려 한다. 다시 말해, 상급학교로의 이행이 중요하다면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둘러싼 경쟁이 이루어지고, 상급학교로의 이행 그 자체보다 좀 더 유리한 계열(track)이나 좀 더 사회적 명망이 있는 대학으로서의 진학이 중요하다면 유리한 계열이나 명문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해 경쟁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출신배경의 영향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EMI 가설은 좀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행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언제든지(고등교육이 팽창해 대학교육기회의 공급이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더라도)

6)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기유학 열풍과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⁷⁾(방하남 외, 200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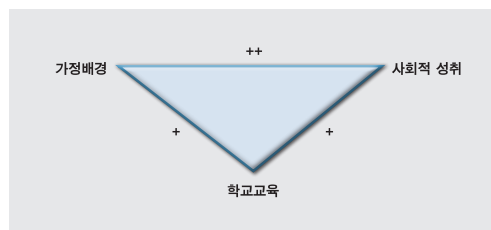
이와 같이 교육의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앤더슨(Andersen, 1961)은 미국, 스웨덴, 영국 등 3개국에서의 교육과 사회적 지위이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과의 상관관계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와의 상관관계보다 낮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을 높임으로 해서 더 나은 사회적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보돈(Boudon, 1973)도 사회적 지위이동 및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의 회의적인 역할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했다. 젠크스 등(Jencks et al, 1972; 김병성, 1985 재인용)은 아래 그림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교 교육 연한이나 인지적인 요인과 개인의 수입 간에는 별 상관성이 없으며, 특히 아버지의 직업이나 교육은 아들의 수입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2. 젠크스의 모형



보울즈와 진티스(Bowels & Gintis 1976; 김병성 외 1982 재인용)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지위는 학교 교육보다 가정 배경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은 이외에도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그림 3). 이는 블라우와 던컨의 연구 결과와 대조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그들은 학교가 사회적 지위 이동을 통하여 평등을 실현시키는 기관이기보다는 현존하는 불평등 체제를 유지, 존속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파악하였다(김병성 외, 1982).

그림 3. 보울즈와 진티스의 모형



7) 우리나라의 특목고 진학을 위한 경쟁이라든지 명문대 진학 경쟁 등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이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여느 다른 나라보다 높았기 때문에 교육이 사회적 지위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중요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사였다. 1980년대 중반 김병성(1982, 1985)의 연구는 학교교육이 여타의 요인에 비해 개인의 직업적, 경제적 지위 획득에 가장 요인으로 결론짓고 있다. 또한,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의 직업과 교육이 본인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각각 0.069와 0.149)과 아버지의 직업과 교육이 본인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각각 0.058과 0.037)은 매우 미미한 반면 본인의 교육수준이 본인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0.2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 안치민(1988)의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 안치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개방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사회불평등체계는 비교적 개방적이며, 귀속적 요인인 계층배경(아버지의 교육과 직업지위)의 직접적 효과(각각 0.05963과 0.26068)보다는 교육의 순수효과(0.51348)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폐쇄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능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블라우와 던컨의 모형과 유사한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볼 때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의해 사회적 지위의 이동 가능성이 상당히 넓게 열려있는 성취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 특히 2000년을 전후한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기능주의적인 낙관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역에 따른 학력격차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분석한 김경근(2005)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학력과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보호자가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부의 학력이 본인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우현(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의 학력이 본인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평등의 대물림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고학력화로 인하여 단순한 교육수준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동일 학력집단 내에서의 차별화에 대한 연구로 정교화되고 있다. 예컨대 2004년 서울대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 가정 대비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입학비율은 1985년 1.3배에서 2000년에는 16.8배로 급증하였으며, 졸업생만 명당 입학생 수에서도 전국 평균은 10명에 채 미치지 못하는 데 비해 서울은 약 15명, 서울 강남 지역은 25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익 외, 2004).

요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던 1980년대의 연구들은 교육이 불평등의 대물림에 기여하기보다는 계급간 사회이동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 경향이 있는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이 세대간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동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는 결과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교육에 의해 유지되는 교육체제가 교육기회 배분을 계층간 경쟁에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계층 간의 심각한 교육기회의 격차를 야기하고 기존 사회의 불

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함으로써, 직접교육비의 부담능력에 따라 교육기회의 배분이 규정됨으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에의 접근가능성은 희박해지고 결국 교육으로 인한 불평등 분배는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교육재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육비의 민간 부담 및 사교육비의 불평등은 교육비 부담능력에 따른 계층간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사회이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가. 연구자료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자료는 2006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복지패널 1차 조사결과이다. 한국복지패널 1차 조사 결과는 가구조사표 기준 7,072가구, 가구원조사표(중·고생을 제외한 15세 이상 가구원) 기준 14,469명에 대해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주거, 사회복지제도, 개인사(life history) 등 포괄적인 항목들을 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사 항목으로 응답자의 아동기 경제상태), 부모의 학력과 직종, 성장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미곤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중 20~59세 남성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가구소득의 일차소득이 가구주에 의해 가장 많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19세 이하와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 의해 가구소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여성 가구주를 제외시킨 것은 본 연구에서 주로 관심이 있는 교육의 소득효과가 남성과 여성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생기는 분석결과에 있어서의 혼란(noise)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20~59세 남성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할 때 총 분석 사례수는 3,557명이다. 다만, 한국복지패널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기 때문에 가중치를 준 이후의 사례수는 명목적 사례수와 다르다.

나.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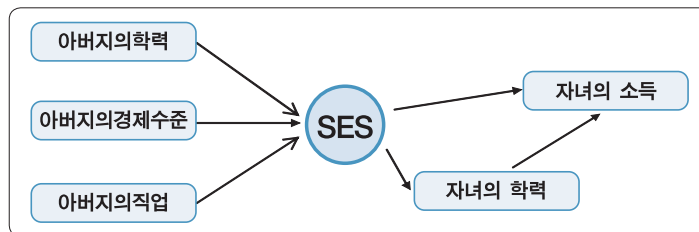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아버지의 소득 및 학력과 응답자의 소득 및 학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한다. 단순 상관관계표는 행렬이 많아질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카이제곱 검증의 경우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만 검증해 줄 뿐이며, 그나마도 사례수(n)이 증가하면 거의 항상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 사회과학과 마케팅 분야 등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응분석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의 소득과 학력의 근접성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대응분석은 프랑스와 일본에서 범주형(categorical) 자료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범주형 변수의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of categorical variables)이라 불린다. 즉, 대응분석은 유클리디안 거리 대신 피어슨의 카이제곱 거리를 측정하여 행 변수(column point)와 열 변수(row point)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시각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AS 7.0와 Stata 9.0를 이용하여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응분석은 열(row) 범주의 유사성, 행(column) 범주의 유사성, 그리고 행과 열 변수 간의 관계를 열(행) 좌표(coordinates)와 도표상의 원점(origin)을 통해 탐색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대응분석은 대부분 도표에 의해서만 설명된다. 즉, 도표는 대응분석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다. 도표에서 열(행) 범주들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열(행) 프로파일이 유사함을 의미한다. 또한, 열(행) 프로파일과 열(행) 중심(centroid)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그 열(행)이 모집단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열과 행간의 관계는 열 포인트(r)과 행 포인트(c) 간의 거리가 아니라, 원점-열포인트(OR)과 원점-행포인트(OC)의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OR과 OC가 같은 방향이면 이 둘(r과 c) 간에는 강한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둘은 독립적인 관계라고 가정했을 때보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OR과 OC의 길이가 길수록 즉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r과 c 간에는 더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경제적 수준, 직종,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경로분석 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다. 아래 그림에서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아버지의 학력, 경제적 수준, 직업이라는 세 가지 측정변수에 의해 추정되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학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일차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잠재변수를 가진 경로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AMOS 7.0을 이용하였다.

그림 4. 경로분석 모형



다. 변수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아래 표 4와 같다. 우선 소득은 연간소득으로서 1인 균등화된 일차소득이다. 균등화지수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사용하였으며, 일차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의 합계액이다. 대응분석을 위해서는 연속형 변수인 소득을 범주형 변수(서열변수)로 전환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하위계층(1분위), 중하위계층(2~3분위), 중위계층(4~7분위), 중상위계층(8~9분위), 상위계층(10분위)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주 아버지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가구주의 아동기 시절(0~17세)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경제수준은 매우 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 부유의 5범주로 구분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초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대졸이상의 네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주 부(父)의 교육수준은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학이상(전문대 포함)의 4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 가구주의 학력 범주와 가구주 아버지의 학력 범주를 달리 설정한 것은 가구주의 경우 초졸이하의 빈도가 매우 낮고 대졸이상의 빈도가 높은 반면, 가구주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상의 빈도가 매우 낮고 초졸이하의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직종과 관련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⁸⁾에 따른 직업분류를 사용하였다⁹⁾.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체계는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10개 분류와 군인을 별도의 구분으로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체계를 준용하되 이를 좀 더 단순화하여 가구주의 경우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어업숙련종사자 및 기능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주부, 무직, 기타의 5개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가구주 아버지 직업의 경우 전 세대에 대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였고 사무직이 비교적 높은 지위를 누렸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사무직,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농어업숙련종사자/ 기능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주부, 무직, 기타의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코호트별 분석을 위하여 연령을 20~39세, 40~49세, 50~59세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대와 30대를 하나의 범주로 묶은 것은 20대 가구주의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부분 '90년대 고학력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시대를 공유했던 세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8)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직업분류를 작성한 것은 1960년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서 국제조사에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후 통계국 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통계표준분류를 설정하게 되어 1958년 제정, 각국에서 사용토록 권고된 ILO 국제표준직업분류(SCO-58)를 근거로 1963년 한국 표준직업분류가 제정되었다. 1963년 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미비점과 불합리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68, 88)과 국내의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왔다(70, 74, 92). 1992년 4차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전면 개정된 이래 7년이 경과하였으며 정보통신 및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많이 출현하였고, 산업의 기계화에 따라 많은 직업이 쇠퇴하여 직업분류를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7월 개정작업에 착수, 1년 6개월에 걸쳐 제5차 개정작업을 추진,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 1. 7)로 확정·고시하고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http://laborstat.molab.go.kr>).

9) 국제비교연구에서 종종 사용되는 직업분류체계로는 Treiman's Standard International Occupational Prestige Scale (SI-OPS), Ganzeboom et al.'s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ISEI), Erikson and Goldthorpe's class categories (EGP) 등이 있다. 이러한 직업분류체계에 기초하여 한국실정에 맞게 분류한 것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연구가 아니며 한국 실정에 맞는 분류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를 준용하였다.

표 1. 변수명과 변수의 정의

변수명	변수리스트	변수값
eqin_p	균등화된 일차소득	단위: 만원/연간
eqin_px5	균등화된 일차소득의 5범주 구분	1분위=1, 2-3분위=2, 4-7분위=3, 8-9분위=4, 10분위=5
eco_f	아버지의 경제적 생활수준	매우가난=1, 가난=2, 보통=3, 부유=4, 매우부유=5
edu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1, 고졸이하=2, 전문대졸이하=3, 대졸이상=4
edu_f	아버지의 교육수준	초졸이하=1, 중졸이하=2, 고졸이하=3, 대학이상=4
occ	가구주의 직종	단순노무,주부,무직,기타=1, 농업업숙련종사자,기능조립종사자=2 사무,서비스,판매종사자=3, 기술공 및 준전문가=4, 고위공무원및전문가=5
occ_f	아버지의 직종	기능조립종사자,단순노무,주부,무직,기타=1, 농업업숙련종사자=2, 서비스,판매종사자=3, 사무직, 기술공 및 준전문가=4, 고위공무원및전문가=5
age	가구주의 연령	20/39=1, 40/49=2, 50/59=3

III. 분석결과

1. 대응분석 결과

먼저,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 간의 대응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연령집단에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χ^2 는 689.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학력이 초졸 이하인 경우, 자녀가 중졸이하인 실제 빈도는 602명으로 기대빈도인 379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대졸이상인 실제 빈도는 593명으로 기대빈도 852명보다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저학력일 경우 그 자녀 역시 저학력일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이상인 경우, 자녀가 중졸이하인 실제 빈도는 8명으로 기대빈도 52명보다 훨씬 적으며, 자녀가 대학이상인 실제 빈도는 243명으로 기대빈도 111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고학력일 경우 그 자녀 역시 고학력일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교육수준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응분석의 결과를 보여주는 표 2하단의 표와 그림 5에서 이러한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열 좌표(row coordinates)와 행 좌표(column coordinates)에서 초졸 이하 아버지(1)와 중졸이하 자녀(1), 중졸 및 고졸 아버지(2, 3)와 전문대졸 자녀(3) 그리고 대학이상 아버지(4)와 대졸 자녀(4)는 1차원과 2차원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와 동일하게 초졸 이하의 아버지를 둔 자녀일수록 중졸 이하일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대졸 이상의 아버지를 둔 자녀일수록 대졸 이상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전체)

자의 학력 부의 학력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대졸이하	총합
초졸 이하	빈도	602	1186	202	593	2,583
	기대빈도	379	1064	269	852	
	χ^2 기여도	105,616	13,995	16,991	78,822	215,425
중졸 이하	빈도	29	294	97	221	641
	기대빈도	99	264	67	211	
	χ^2 기여도	49,693	3,390	13,943	0,428	67,454
고졸 이하	빈도	26	247	119	369	762
	기대빈도	117	314	79	251	
	χ^2 기여도	70,719	14,173	20,098	55,160	160,150
대학 이상	빈도	8	53	32	243	336
	기대빈도	52	138	35	111	
	χ^2 기여도	37,140	52,533	0,231	157,027	246,931
총합		664	1,781	451	1,426	4,322
χ^2 기여도		263,168	84,092	51,265	291,436	689,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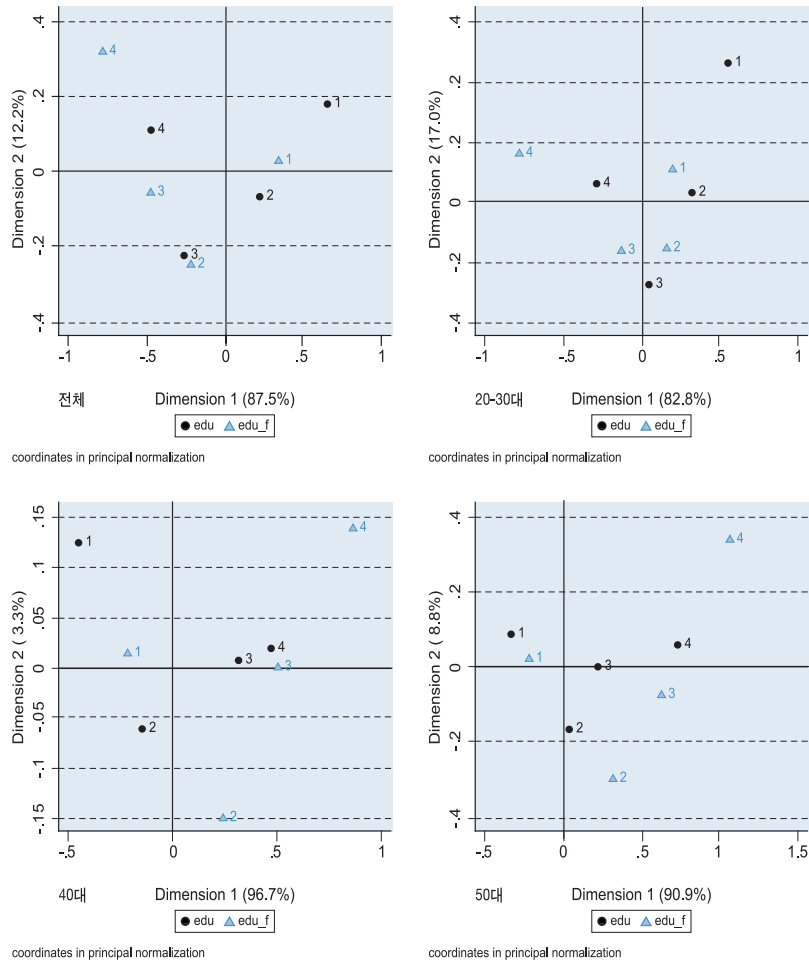
	Row Coordinates			Column Coordinates		
	Inertia	Dim1	Dim2	Inertia	Dim1	Dim2
1	0,3122	0,2859	0,0410	0,1108	0,5976	0,1963
2	0,0978	-0,1994	-0,2535	0,3504	0,1904	-0,1030
3	0,2321	-0,4514	-0,0680	0,1168	-0,2447	-0,2251
4	0,3579	-0,7938	0,3229	0,4220	-0,4389	0,1084

각 연령별 대응관계는 그림 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먼저 50대의 경우 전체 연령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1사분면에 위치해 있는 대학이상 아버지와 대졸이상 자녀 간에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둘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졸이하의 아버지와 중졸이하의 자녀 간의 관계 또한 방향성이 동일하며, 중졸이하 및 고졸이하 아버지와 고졸이하 및 전문대이하의 자녀 간의 관계 또한 방향성이 동일하다. 즉, 50대의 경우도 예외없이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40대의 경우 약간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이상 아버지와 대졸이상 자녀가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거리를 고려하면 대졸이상 자녀는 고졸이하 아버지와 훨씬 더 가깝게 나타난다. 40대의 경우 고졸이하 아버지를 둔 자녀의 경우 전문대졸이하 혹은 대졸이상일 확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방향성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초졸 이하 아버지를 둔 자녀의 경우 고졸이하의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¹⁰⁾.

10) 일반적으로 대응분석에서는 방향성과 중심과의 거리(OR과 OC)가 중요하지만, 비록 다른 사분면에 존재하더라도 각 포인트와 중심 간의 삼각형이 예각을 형성한다면 두 포인트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30대에 대한 대응분석의 결과는 전체 대응분석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향성의 측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1사분면에 초졸이하 아버지와 중졸이하 및 고졸이하 자녀가 공존한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초졸 이하인 경우 자녀의 학력이 중졸이하이거나 고졸이하일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거리의 측면에서(OR과 OC) 초졸 이하의 아버지와 고졸이하의 자녀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2사분면에 대학이상 아버지와 대졸이상 자녀가 함께 나타난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 이상인 경우 자녀의 학력이 대졸이상일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20대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학력과 아들의 학력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 학력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아버지와 자녀의 학력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아버지 학력과 자녀 학력의 양극단치의 경우는 모든 코호트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며 대체로 원점(centroid)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즉, 대학이상 아버지-대졸이상 자녀와 초졸이하 아버지-중졸이하 자녀는 항상 도표 상에 같은 사분면에 존재하며, 특히 많은 설명력을 가진 x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는 학력이 대물림되고 있음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간 영역에서의 이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양 극단으로의 이동은 어려우며, 따라서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에게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둘째, 특히 40대의 경우 아버지에 비해 자녀의 전반적인 학력이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40대에서는 50대에 비해 초졸이하 아버지-고졸이하 자녀, 고졸이하 아버지-대졸이상 자녀 간의 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대를 전후로 고학력화가 진행되어 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경제수준과 자녀의 경제수준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는 표 3 및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연령집단에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χ^2 는 6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슷한 사례수를 감안할 때 그 차이는 교육수준에 비해 작은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가 모두 하위계층인 경우와 아버지는 중하위계층이고 자녀는 상위계층인 경우 χ^2 의 기여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매우 가난한 집단의 실제 빈도는 44명으로 기대빈도 28명에 비해 많은데 비해, 아버지 세대는 가난하지만 자녀 세대는 상위계층인 집단의 실제빈도는 105명으로 기대빈도 147명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즉, 이는 매우 가난한 아버지를 둔 자녀가 하위계층을 형성할 가능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는데 반해, 가난한 아버지를 둔 자녀가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산층 아버지를 둔 자녀의 경우 중하, 중, 중상계층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자녀가 하위계층으로 떨어질 확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유한 아버지를 둔 자녀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상위계층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세대의 경제수준이 자식세대의 경제수준과 일정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예외적으로 큰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아래 표 3의 하단 표를 보면, 열 좌표(row coordinates)와 행 좌표(column coordinates)에서 하위계층 아버지(1)와 하위 및 중하위계층 자녀(1, 2), 중상위 및 상위계층 아버지(5)와 상위계층 자녀(5)는 1차원(dimension 1)과 2차원(dimension 2)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와 동일하게 가난한 아버지를 둔 자녀일수록 가난할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부유한 아버지를 둔 자녀일수록 부유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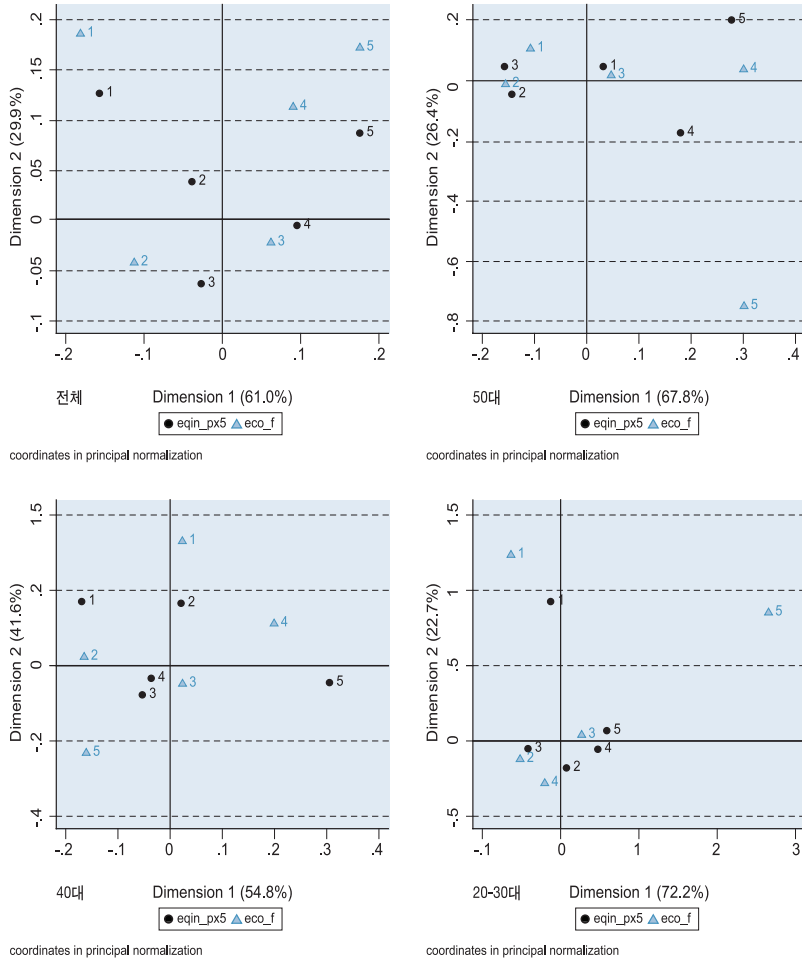
표 3. 아버지의 경제수준과 자녀의 경제수준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전체)

자의 경제수준 부의 경제수준		하	중하	중	중상	상	총합
매우 가난	빈도	44	70	103	41	28	286
	기대빈도	28	57	116	56	29	
	χ^2 기여도	9,2663	2,9656	1,4795	4,1117	0,0204	17,8436
가난	빈도	161	297	640	263	105	1,465
	기대빈도	143	291	597	287	146	
	χ^2 기여도	2,1020	0,1381	3,0812	2,1527	11,8752	19,3492
보통	빈도	174	411	884	449	243	2,161
	기대빈도	212	429	880	424	216	
	χ^2 기여도	6,6045	0,7873	0,0120	1,5182	3,4070	12,3289
부유	빈도	46	87	154	95	60	443
	기대빈도	43	88	181	87	44	
	χ^2 기여도	0,2139	0,0033	3,8641	0,8190	5,3957	10,2959
매우 부유	빈도	5	8	11	14	4	42
	기대빈도	4	8	17	8	4	
	χ^2 기여도	0,1884	0,0181	2,5478	4,7209	0,0038	7,4790
총 합		430	873	1,791	863	440	4,397
		18,3750	3,9124	10,9846	13,3225	20,7022	67,2966

	Row Coordinates			Column Coordinates		
	Inertia	Dim1	Dim2	Inertia	Dim1	Dim2
1 = 하	0,2651	-0,1645	0,1835	0,2730	-0,1601	0,1279
2 = 중하	0,2875	-0,1070	-0,0382	0,0581	-0,0501	0,0418
3 = 중	0,1832	0,0701	-0,0251	0,1632	-0,0351	-0,0683
4 = 중상	0,1530	0,1002	0,1140	0,1980	0,1073	-0,0074
5 = 상	0,1111	0,1863	0,1727	0,3076	0,1888	0,0846

아래 그림에서 아버지의 경제수준과 자녀의 경제수준 간의 관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중상계층 아버지와 상위계층 자녀의 경우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원점으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이들 열 포인트와 행 포인트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위계층 아버지와 하위계층 자녀, 하위계층 아버지와 중위계층 자녀, 그리고 중하위 계층 아버지와 중하위 계층 자녀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의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아버지의 경제수준과 자녀 경제수준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아버지의 경제수준과 자녀의 경제수준에 대한 대응분석의 결과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먼저, 전체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비교적 계층간 경제수준의 세습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연령집단별로 분석할 경우 코호트효과와 연령효과가 섞여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50대의 경우 노동시장 퇴출기로서 이전의 노동시장 지위나 소득과 관계없이 계속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진정한 세습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20~30대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기로서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잠재적 소득능력과 관계없이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령효과가 코호트효과를 교란시킨 결과 진정한 세습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학력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즉,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특히 매우 빈곤한 집단 간의 빈곤의 세습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반대로 부유한 계층 간의 세습효과 역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의 경우 다른 계층과는 달리 극빈층 아버지를 둔 자녀가 여전히 빈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계층간 이동이 비교적 활발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집단과 부유한 집단 간의 괴리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 될 수록, 전반적인 부가 증가하면 할수록 극빈층은 절대적·상대적 수준에 있어 더 열악한 위치에 놓여질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교육이 보편화될수록, 즉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진정한 계층이나 계급을 구분하는 지표로서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소득의 경우 연령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자영자 등의 경우 역동성과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계층 혹은 계급의 지표로서 완전하지 않다. 이에 비해, 직업의 경우 직업간 이동성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각 집단의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연령효과도 크지 않아 계층 혹은 계급의 지표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는 표 4 및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χ^2 은 308.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교육수준보다는 작지만 경제수준보다는 훨씬 더 컸다. χ^2 의 기여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집단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기능조립직 자녀와 전문가 자녀, 사무직 혹은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기능조립직 자녀와 사무직 자녀, 전문가 아버지를 둔 전문가 자녀 등이다. 예를 들면, 농어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전문가 자녀의 실제 빈도는 102명으로 기대빈도 176명에 크게 못 미치는 데 비해, 이들 자녀가 기능조립직에 종사하는 실제 빈도는 858명으로 기대빈도인 719명을 크게 상회한다. 반면, 전문가 아버지를 둔 전문가 자녀의 실제 빈도는 36명으로 기대빈도 12명의 세 배에 이르는 데 비해, 이들 자녀가 기능조립직에 종사하는 실제 빈도는 18명으로 기대빈도 49명의 약 1/3 수준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시기에 사회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회이동의 계층별 편차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종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자녀의 직업 경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대응분석의 결과를 보여주는 표 4하단의 표와 그림 7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열 좌표(row coordinates)와 행 좌표(column coordinates)에서 단순노무직 및 기능조립직 아버지(1)와 단순노무직 자녀(1) 및 기능조립직 자녀(2), 서비스 및 판매직 아버지(3), 사무직 및 준전문직 아버지(4)와 사무직 자녀(3), 그리고 전문직 아버지(5)와 전문직 및 준전문직 자녀(4)는 1차원

(dimension 1)과 2차원(dimension 2)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6-4.의 결과는 1-1, 2-2, 3-3, 5-5 간의 대응성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방향성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1-1, 3-3, 5-5의 경우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도 상당히 먼 것으로 보아 이들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하위직종 아버지를 둔 자녀일수록 하위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반대로 상위직종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일수록 자녀 역시 상위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표 4. 아버지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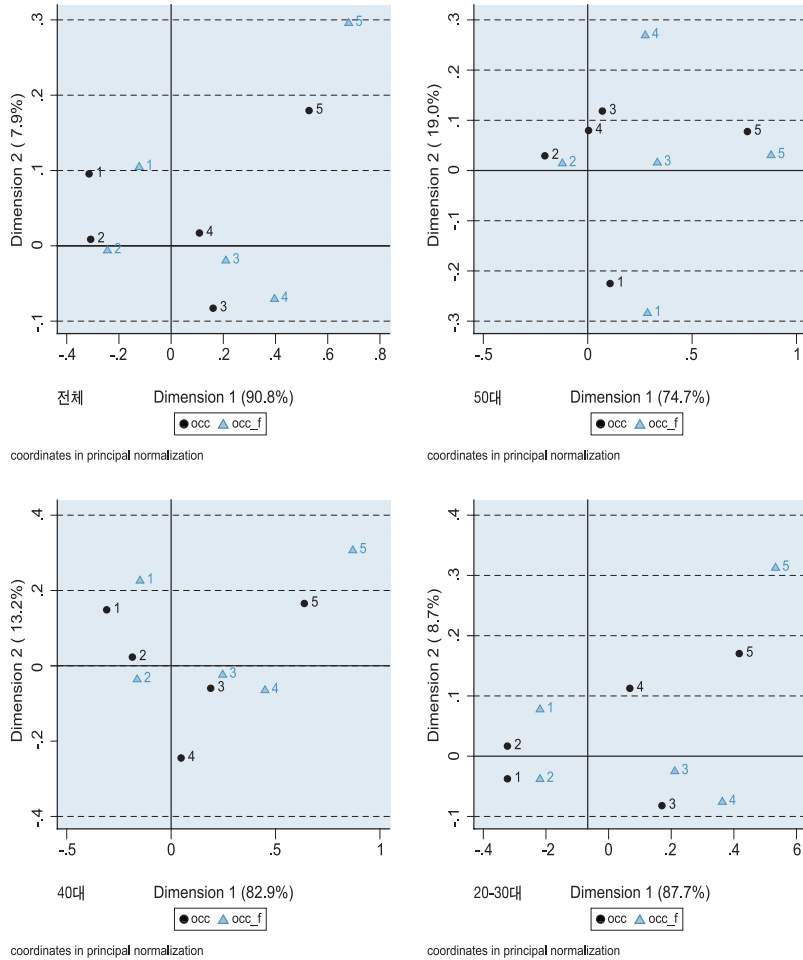
자의 직업 부의 직업		단순노무직	기능조립직	사무직	준전문가	전문가	총합
단순노무, 기능	빈도	107	266	195	60	56	683
	기대빈도	83	239	240	62	59	
	χ^2 기여도	6,985	2,894	8,474	0,117	0,120	18,589
농어업	빈도	285	858	635	171	102	2,051
	기대빈도	250	719	720	187	176	
	χ^2 기여도	5,052	26,826	9,929	1,313	31,237	74,357
서비스, 판매	빈도	60	159	264	53	73	609
	기대빈도	74	213	214	55	52	
	χ^2 기여도	2,729	14,030	12,055	0,154	8,519	37,487
사무, 준전문가	빈도	32	123	274	67	81	577
	기대빈도	70	202	202	53	50	
	χ^2 기여도	20,835	31,214	25,492	4,013	19,808	101,363
전문가	빈도	10	18	56	20	36	140
	기대빈도	17	49	49	13	12	
	χ^2 기여도	2,974	19,540	0,992	3,563	49,355	76,424
총 합		494 38,575	1,423 94,504	1,425 56,943	370 9,159	349 109,039	4,060 308,219
		Row Coordinates			Column Coordinates		
		Inertia	Dim1	Dim2	Inertia	Dim1	Dim2
1		0,0603	-0,1282	0,1020	0,1252	-0,2595	0,0915
2		0,2412	-0,1892	-0,0180	0,3066	-0,2573	0,0008
3		0,1216	0,2365	-0,0424	0,1847	0,1816	-0,0824
4		0,3289	0,4095	-0,0820	0,0297	0,1353	0,0309
5		0,2480	0,6780	0,2881	0,3538	0,5822	0,1713

연령별로 아버지의 직업과 자녀 직업에 대한 대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한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50대의 경우, 전문직 아버지와 전문직 자녀 간에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x

축 중심점(centroid)으로부터의 거리도 멀어 이 둘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노무직 혹은 기능조립직 아버지와 단순노무직 자녀 간에도 동일한 방향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y축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것으로 보아 이 둘 역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기능조립직 자녀 역시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짧아 그 관계의 밀접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50대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단순노무직 또는 기능직 아버지를 둔 자녀의 경우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40대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즉, 1-1, 2-2, 3-3, 5-5 간의 대응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40대에서도 50대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아버지와 전문가 자녀 간, 단순노무직 및 기능조립직 아버지와 단순노무직 자녀 간에 동일한 방향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x축과 y축의 중심점(centroid)과 거리 또한 멀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문가 아버지를 둔 자녀가 전문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단순노무직 아버지를 둔 자녀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20~30대에서 이러한 양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전문직 아버지와 전문직 자녀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서비스 판매직 아버지와 사무직 자녀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노무 및 기능직 아버지와 기능조립직 자녀 간, 농어업직 아버지와 단순노무직 자녀 간에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네 집단은 비슷한 위치에 모여 있으며 집단 간 이동이 비교적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버지의 직업과 자녀 직업 간의 대응분석 결과 주목할 만한 점이 발견된다.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부모세대의 직업과 자식세대의 직업 간의 대응성이 매우 뚜렷히 나타난다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업의 경우 연령효과가 적고 직업간 이동성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계층 혹은 계급의 고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특히, 모든 연령집단에서 전문직의 경우 계층(계급)내 이동이 절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아버지 직업과 자녀 직업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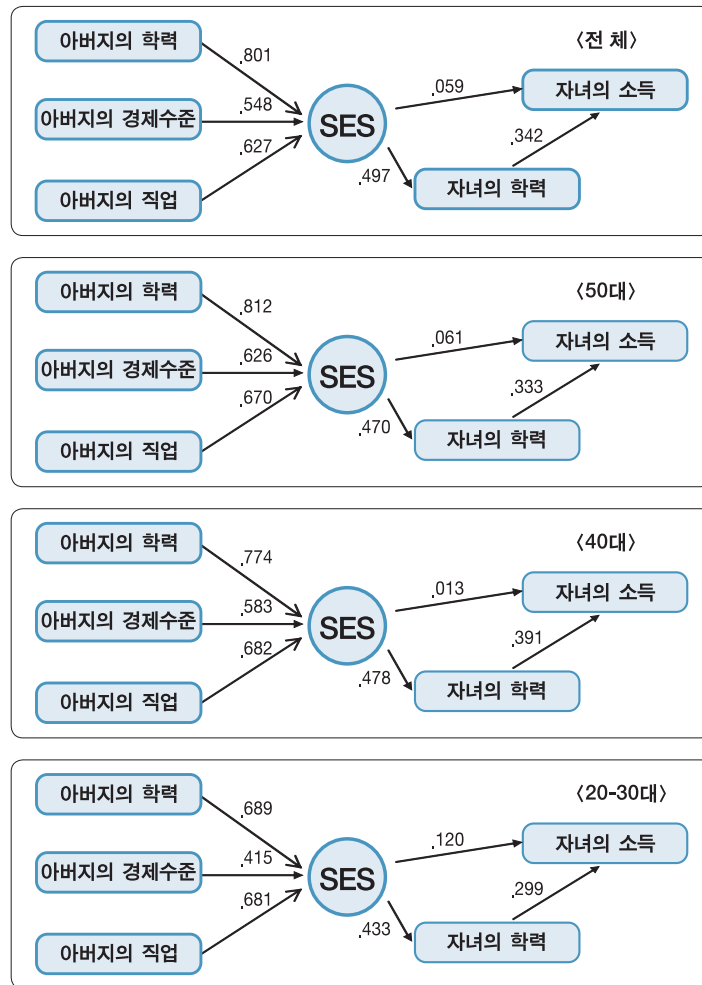


2. 경로분석 결과

자녀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경제수준, 아버지의 직업의 세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 코호트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8과

표 5에 제시되어 있다¹¹⁾.

그림 8. 경로분석 결과(표준화된 계수)



먼저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학력, 경제수준, 직업은 모두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 학력의 설명력은 0.801(전체)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설명력은 50대의 경우 0.812, 40대 0.774, 20~30대 0.689로 젊은 세대로 올

11)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는 지수로는 N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이 있다. 분석된 네 가지 모형에 대해 적합도를 판정한 결과 네 모형 모두 적합도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수록 차츰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는 아버지의 직업으로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0.627에 이른다. 또한 직업의 경우 50대에서 0.670, 40대에서 0.682, 20~30대에서 0.681로 세대에 따라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데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의 설명력은 0.548로 가장 낮으며, 학력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로 올수록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497이다. 연령 코호트별로 50대 0.470, 40대 0.478, 20~30대 0.433으로 최근 세대에서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아버지가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경우 그 자녀 역시 높은 교육수준을 획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반대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그 자녀 역시 교육과정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주의, 학벌주의가 매우 강한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지위가 자녀의 교육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지위가 자녀의 지위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표 5의 (3)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직접효과, 아버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로 해서 미치는 간접효과¹²⁾, 그리고 교육의 순효과와 총효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059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수준을 경유해서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17로 직접효과보다 높다. 결국,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0.23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순효과¹³⁾는 0.172로 아버지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 소득에 미친 영향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연령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득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는 0.061이고 교육을 경유한 간접효과는 0.156으로 총효과는 0.21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육이 소득에 미친 순효과는 0.177이었다. 40대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득에 직접적으로 미친 효과 0.013, 간접효과 0.187로 총효과는 0.2였다. 40대는 50대에 비해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득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가 감소하였으며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는 증가하였다. 총효과 역시 0.018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교육의 순효과는 0.204로 50대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

12) 간접효과는 (SES가 자녀학력에 미치는 효과)*(자녀학력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효과)로 계산된다.

13)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순효과를 (자녀의 학력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총효과)-(SES의 간접효과)로 보았다. 즉, 아버지의 지위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쳐 그 결과 소득에 미친 영향을 배제하였다. 이는 순수한 능력에 의한 성취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타났다. 20~30대의 경우 아버지 사회경제적 지위의 직접적인 효과가 0.120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해 간접 효과는 0.130으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총효과는 0.25로 40대와 50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교육의 순효과는 0.169로 40대와 50대에 비해 약간 낮았다.

표 5. 연령 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1) SES의 요인설명 효과

		전 체	50대	40대	20~30대
SES요인	부의 학력	0.801	0.812	0.774	0.689
	부의 경제수준	0.548	0.626	0.583	0.415
	부의 직업	0.627	0.670	0.682	0.681

(2) 연령 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SES가 자녀 학력에 미치는 영향

	전 체	50대	40대	20~30대
자녀학력에 미치는 효과	0.497	0.470	0.478	0.433

(3) 연령 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SES와 교육이 일차소득에 미치는 영향

		전 체	50대	40대	20~30대
SES효과	직접효과(a)	0.059	0.061	0.013	0.120
	간접효과(b)	0.170	0.156	0.187	0.130
	총효과(a+b)	0.230	0.218	0.200	0.250
교육효과	순효과(c-b)	0.172	0.177	0.204	0.169
	총효과(c)	0.342	0.333	0.391	0.299

요컨대,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으로 직접 이전되기보다는 -유전적 요인 등을 통제한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교육적 성취를 통해 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을 볼 때, 40대에서 가장 성취지향적 사회의 성격이 강한 반면, 20~30대로 올수록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교육의 순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근 들어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대학교육 만으로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어떤 대학을 나와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대응분석에서 학력이나 소득보다 직업의 대응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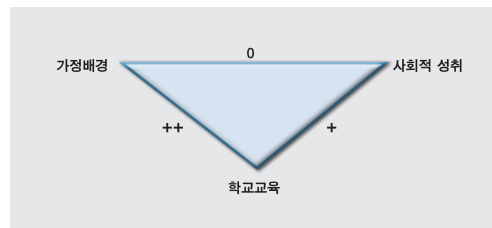
IV. 결론

본 연구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에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정도를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그리고 직업에 대한 대응(일치도)분석을 통해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응분석의 결과 전체적으로 지위의 세습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위의 양극단에서 강한 세습이 나타났다. 즉, 학력에서는 초졸 이하 아버지와 중졸이하 자녀, 대학이상 아버지와 대졸이상 자녀, 경제적 수준에서는 가난한 아버지와 하위계층 자녀, 부유한 아버지와 상위계층 자녀,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직 아버지와 단순노무직 자녀, 전문직 아버지와 전문직 자녀 간의 일치도가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가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이동성도 적어 계급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위변수인 직업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아버지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 간에 상당히 높은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응분석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계층(계급)이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으며 폐쇄사회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녀의 학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던킨과 블라우, 젠킨스, 보울즈와 진티스의 교육효과에 대한 모형과는 다소 상이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가정배경과 교육이 사회적 성취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정배경이 경제수준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서는 블라우와 던킨의 모형과 유사하다. 반면, 가정배경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젠킨스의 모형과 비슷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가지는 매우 독특한 교육지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높은 교육열을 통한 지위획득 경쟁, 높은 공교육의 사부담율과 공교육의 부실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에서의 계층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림 9. 본 연구결과 교육효과 모형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배경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셋째, 경로분석 결과,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가장 낮은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대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높아졌으며,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효과는 떨어졌다.

요컨대,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당히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투자의 계층별 격차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최근 80% 이상의 고졸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같이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하여 대학 졸업자 간에도 졸업 후 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의 직접적인 소득효과는 줄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접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한계 등으로 고등교육 이수자를 좀 더 세분화— 예를 들면 대학전공계열, 대학의 소재지, 명문대 여부 등—하지 못하였다. 향후 좀 더 보완된 변수를 통한 분석은 교육과 사회적 지위의 세습에 대한 좀 더 풍부한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유진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빈곤 및 불평등, 공공부조제도, 국가간 비교연구이며, 현재 한국복지패널, 기초보장제도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eugene@kihasa.re.kr).

참 고 문 헌

- 김경근(1993). 사회적 평등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모색: 교육 평등의 실현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2), pp.5-23.
- 김경근(2005). 한국사회의 교육격차 사회양극화 경향과 교육격차 해소방안. 2005 전국 교육연구소 네트워크 세미나 자료집.
- 김광역 외(2004).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김기석(2004a). 지역계층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제: 교육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성찰. *한국교육학회*, 2000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 김기석(2004b). 공교육과 불평등의 대물림: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연구의 검토. *교육비평*, (2004, 겨울), 제17호.
- 김미곤 외(2006).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병성(1985). 교육기회와 사회적 지위이동의 가능성. 한국교육개발원.
- 김병성, 정영애, 이인효(1982). 학교교육과 사회적 성취.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석(2006).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양극화 담론의 지형: 교육양극화의 현황과 대처방안. *한국교육네트워크 학술대회*.
- 김종엽(2003).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가을호(통권 제59호).
- 남춘호(2004). *교육과 불평등*.
- 방하남 외(2004).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한울 아카데미.
- 안치민(1988). 사회이동과 사회불평등체계의 특성. *사회와 문화*, 4(1), pp.35-57.
- 양재진(2005). 지식·정보화 사회와 교육 불평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오호영(2006. 10.). 소득계층과 학업성취도. 제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우천식 편(2004).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조우현(2004). 아버지 학력과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27(2), pp.67-89.
- Andersen, C. A. (1961). A Skeptical Note on Education and Mobility in Halsey, A. H. and Andersen, C. A. *Education, Economy &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Blau, P., & Duncan, D. C. (1967).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ley.
- Boudon, Raymond. (1973). *Education, Opportunity, and social Inequality: Changing Prospects in Western Society*.
- _____ . (1974). *Education, Opportunity, and social Inequality: Changing*

Prospects in Western Society.

d'Addio, Anna Cristina. (2007).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sadvantage: Mobility or Immobility Across Generation? A Review of the Evidence for OECD Countries. OECD.

Jencks, D. et al. (1972). In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Pub.

Muller, Walter. (2007). Educational Inequality in Europe and It's Change in the 20th Century KIHASA presentation paper.

OECD. (2007). Education at a Glance, OECD.

Sewell, W. H., Hauser, R. M., & Featherman, D. L. (1976). Schooling and Achievement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Academic Press.

Swell, W. H., & Hauser, R. M. (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New York: Academic Press.

Thurow, R. M. (1972). Educ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Public Intrest, Summer.

A Study of the Influence of Education on Social Mobility

Eugene Yeo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influence of education on social mobility in Korea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first wav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how son's schooling and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separately and interweavingly influence on son's economic achievement. The result of correspondence analysis and path analysis is summarized as such: Firstly, in the result of correspondence analysi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 both ends of socio-economic status is salient. In more detail, very rich, professional, high educated sons have a strong possibility to have high socio-economic background(parents) and the other ends are the contrary. Secondly, the influence of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on son's achievement is not so much indirect as direct. In other words, Socio-economic background influences on one's economic achievement by way of one's school career. Thirdly, investigating by cohort, the direct effect of socio-economic background is the lowest in 40s and the highest in 20s~30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is handed down from father to son especially by way of schooling.

KEY WORDS

Social Mobility,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Schooling